

오피니언

월/요/광/장

서선희



여러 행사로 가득 찼던 5월 '가정의 달'이 끝났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양한 행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및 남성적 여성의 역할을 이분화하는 역할 분리를 통해 가족이 제도적으로 성차별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해 왔다.

이다. 시켈의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란 자신이 내뿜는 독소로 인해 다른 가족원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잘못은 늘 상대방 탓으로 보아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법이 없으며, 자기로 인해 다른 사람

생명의 장(場), 가족

이 고통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더하여 자신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 글은 가족이 '인식' 내지는 '사랑과 애정의 공동체'만이 아님을 알게 했다. 가족의 악한 얼굴로 인해 가족을 떠나거나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만 자신이 즐거운 경우는 거의 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나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더 신경을 쓰고, 자신의 욕구나 열망은 주장하려고 하지 않으며,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하고, 책임감이 지나치게 발달해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주고자하며, 동정심과 사랑을 혼동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가족에 대하여 밝혀진 이러한 연구들과 비판들은 가족이 '인식' 내지는 '사랑과 애정의 공동체'만이 아님을 알게 했다. 가족의 악한 얼굴로 인해 가족을 떠나거나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우리 인간의 삶에 필수적 제도이다. 아동학이나 인간 발달학의 많은 연구들은 아이들 양육과 성장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건강한 발달에 가족만한 곳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성인으로서의 삶에 기초적인 신뢰감과 유대감을 체화하고 자신의 정체감과 관계의 역동성을 배우게 되는 곳이다. 한때 시도되었던 소련이나 이스라엘의 집단주의적 아동 양육 방식이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은 가족이 아이들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가족을 통해 우리는 인간적 성숙을 이루어 가기도 한다.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가족관계의 반영구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를 참아내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어머니 아버, 또는 아들과 딸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부단한 노력 속에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헌신과 희생을 배우게 된다. 가족 관계를 통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덕과 윤리를 배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공직사회 선거 후 '보복·보은 인사' 안된다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공직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수장(首長)이 바뀐 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의 공직자들이 좌불안석(坐不安席)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 후 불이익을 입는 인사 태풍 때문이다. 광주·전남 공직사회에선 벌써 대폭적인 '물갈이' 설이 나돌고, 새 단체장에 게 줄을 대기 위해 혈안이 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곳에선 '살생부'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선거 후 공직사회의 물갈이는 어느 정도 필요하. 능력있는 인물발탁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공직사회에 개혁과 변화를 이루는 것은 지역민들의 기대이다. 하지만, 선거 후 인사가 보복·보은 인사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사실 지금까지 선거가 끝나면 의례 권 가르가 정실인사가 있어 왔다. 이는 다시 공직자의 출사기를 강요하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을 좁히는 정실인사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척결 돼야 한다. 물론 일보다 줄서기에 능한 공직자는 과감하게 도태해야 마땅하지만 이도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해야 한다. 민선 5기 단체장들은 유권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포용과 소통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유난히 박빙 승부가 많았던 사실은 자신을 지지한 주민들과 거의 비슷한 유권자가 자신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도 소통 부족과 일방 독주가 빚은 결과다. 민선은 독선을 용납하지 않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 큰 가늠이가 있어야 안 된다. 지지자와 반대 세력 모두를 포용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평범한 진리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선 5기 지방자치에서는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고, 실력·능력이 존중되는 인사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4대강 사업 등 국정 운영 방향 달라져야

현 정부의 핵심 현안인 4대강 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야권 광역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 등 본격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영산강 사업 역시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기존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방식과 일정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당선자는 최근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하는 지금 같은 방식의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며 "영산강은 개발보다는 수질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은 국가하천으로 국토해양부가 준설과 보 건설 공사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4대강의 강바닥을 파낸 준설토 처리는 지자체가 맡도록 돼 있다. 따라서 단체장들이 준설토 적치장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강바닥에서 파낸 흙으로 인근 농지를 성토하는 농경지

리도밀링 사업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가 정책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온 야당의 손을 들어준 만큼 지금까지도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여론에서 국정 쇄신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사람 몇몇을 바꾼다고 국정 쇄신이 이뤄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의 큰 틀이 바뀌어야 한다. 오만과 소통 부재의 독선에서 벗어나 밑바닥 민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6·2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게 집권 전반기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켰다. 4대강 사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신승희



필자는 5년차 검사다. 그리 길지 않은 동안 검사생활을 하였지만, 그동안 검찰은 참 많은 변모를 겪어왔고 지금도 변화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다. 그 지향점은 바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 친절하고 따뜻한 검찰, 국민 참여 검찰이라고 하겠다. 그중에서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최근 적극 시행중인 광주시민이 중국 결정에 참여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몇 가지 제도를 알리고자 한다. 첫째, 수사심의위원회이다. 이는 검사가 구속을 취소하고자 할 때, 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경우 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하여 검사가 단독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 관계로 피해 회복 및 궁극적인 관계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가 절실할 때에도 조정절차 없이 기소유예나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고 있어 중폭적 사건 해결을 못 하는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일반 시민들인 형사 조정위원들이 가해자, 피해자 및 보호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중재역할을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있다. 실제 형사조정이 바로 가해자에게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보다 가해자,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뿐 아니라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초범인 소년소녀 사범들에게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의 검찰

으로 결정하던 종전과는 달리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인신사수와 석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위 구성원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지역 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다. 광주지검에서는 구속취소 여부가 고민되었을 때 위 수사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한 사건이 다수 있었다. 필자 또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공무집행사범에 대하여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여 그 의결 결과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다. 둘째, 소년소녀 사범에 대하여 시민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에 관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시도하고, 일정한 조건에 개선가능성이 충분한 소년소녀들에게 대학생과의 대화 등을 통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회를 주고 앞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소년소녀 사범의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 관계로 피해 회복 및 궁극적인 관계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가 절실할 때에도 조정절차 없이 기소유예나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고 있어 중폭적 사건 해결을 못 하는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일반 시민들인 형사 조정위원들이 가해자, 피해자 및 보호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중재역할을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있다. 실제 형사조정이 바로 가해자에게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보다 가해자,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뿐 아니라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초범인 소년소녀 사범들에게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시스템 급하다

예전에 조오련 선수가 심장마비, 즉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심장마비가 찾아오면 4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만 소생이 가능하다고 한다. 앞으로 광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 시민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우선 공무원 전체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점차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광주시는 모

든 기자역이나 공학 등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장비(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 교육청에서는 심폐소생술 자격 교육을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의무화하고,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반상회보에 매달 심폐소생술 안내문을 싣고 동사무소나 119구급대 쪽에서 반상회장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시켜 주면 좋을 듯하다. ▲이순애·광주시 북구 총회총무

기고

최현주



진주의 아름다움은 조개의 속살에 생긴 상처로 얻어진다. 조개가 숨을 쉬기 위해 입을 벌리다 보면 모래알이 조개 속으로 들어오고 이로 인해 상처가 생긴다. 조개는 모래알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몸속의 체액을 분비하여 상처를 계속 곱겹이 쌓는데, 수년간 반복되는 이 과정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는 진주가 탄생되는 것이다. 조개가 날카로운 모래알을 뱉어 버리기만 했다면 아름다운 진주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조개는 자신을 찌르는 모래알을 품고 온갖 상처를 이겨내서 결국 오랜 시간의 인고 끝에 진주로 승화시킨다.

열되고 대립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더욱 더 지역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화합이 절실하다. 우리는 빛고을이라는, 크게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다. 머나 먼 항해 도중 구성원간 의견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은 풀릴 때까지 풀어야 한다. 배 밖의 사나운 풍랑은 생명을 위협한다.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갈등을 겪는 상대방과 화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상대방의 도움이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선거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이 우리 광주

6·2 지방선거 갈등, 이젠 화합으로

지난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가 지역사회나 정치권에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끝났다. 그러나 영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않았지만 시민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편중 지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선진 의식을 보여 준 점이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투표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표심은 갈라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갈라진 표심은 여야간·지역간·계층간의 갈등을 표출시키고 지역사회의 반목과 분열을 조장시킬 수도 있다. 적당한 갈등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지만 지나친 갈등은 사회불안을 초래한다. 선거결과로 인하여 당선자와 낙선자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지역민이 갈등양상을 보이는 선거후유증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치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구성원간 상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대해 모든 개개인이 만족할 수는 없다. 다수가 소수의 의견도 아우르는 아람과 지혜와 덕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군다나 천안함 사태, 4대강 사업 등으로 국민이 분

가 가장 많다고 들린다. 후보자간, 지지자간, 표출방법은 달랐지만,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애환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의 희망찬 미래 건설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융화하는 자세로 힘을 모아야 한다. 선거전에서 나타난 갈등적 경쟁을 양극이나 후유증이 아닌 지역발전의 시금석으로,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유럽 선진국에서 지방선거는 지방의 축척과 일궈진다. 선거기간 중에는 주민들이 서로 지지 후보가 달라 경쟁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패자는 깨끗이 승복하고 승자는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하고 개인이 발전한다. 광주에서는 선거분위기를 일소하고 지역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간담회, 워크숍 등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의 상생적 화합은 민선 5기의 성공적 출발과 풍요로운 세계 속의 창조도시 광주 건설에 강력한 추진동력이 될 것이다. <광주시 지치행정국장>

'미래의 보배' 아동 보호 캠페인에 적극 동참을

사람을 받으며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아야 할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이 삭막한 사회에서 날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에서 사강의 결과로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 가정 파탄으로 버림받은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절실할 때이다.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운영으로 날마다 사랑의 봉사 정신을 발휘하여 활동하다 보면 가족의 무관심으로 집 밖을 배회하는 아동들을 종종 보곤한다. 이런 아동들을 발견

할 때마다 웃음으로 보살펴 주고,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면서 아름다운 상담으로 안정시켜 줄 때까지 인도하기도 한다. 성인들이 아동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사랑과 봉사로 관심을 베풀어 준다면 아동들은 아름다운 우리 사회속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것이다. 우리 아동을 보호하기 "사랑의 캠페인"에 동참해 참여했으면 좋겠다. ▲정순우·광주남부경찰서 백은지구대

無等鼓

민심은 준엄했다.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은 서릿발이었다. 한나라당 일색의 지방권력을 교체하고 범야권에 대승을 안겨 이명박 정부를 중간 평가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강행, 세중시 수정 등 오만과 독선의 일방 통치에 대한 심판이었다. 북풍과 전교조를 내세워 이념대결을 꾀했던 여론의 의표를 짚었다. 대신 노무현 대통령이 추수한 서민중심·민주주의·남북화해의 가치를 불려냈다. 노풍의 계승자들을 지방권력의 수장으로 세웠다.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심판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와 전남을 포함 6명의 '진보' 교육감을 당선시켜 MB식 경쟁교육에 개혁을 요구했다. 민심은 오묘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야당에 승리를 안겨줬다. 집권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선거 정국에서 표심은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어김없이 작동시켰다. 2000년 이후 총선 승자는 매년 바뀌고 있다. 이번 지방선

거에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마의 벽'으로 여겨졌던 두자릿수 득표율을 안겼다. 무소속 돌풍도 이어졌다.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를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민심은 그의중을 함께 드러내지 않는다. 투표 전 속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탓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여론조사 예측이 빗나가고 출구조사 결과조차 엇갈리는 배경이다. 그러다 보니 '숨은 표'가 갈수록 위력을 발휘한다. 디지털세대들은 트위터와 스마트폰으로 투표표를 독려하며 선거판도를 바꾸고 있다. 민심은 살아 움직인다. 표심에 담긴 뜻을 왜곡해 자만하거나 멋대로 해석하려 하면 가차없이 응징한다. 이번엔 민주당에 기회를 줬지만 변화의 열망을 외면하면 다가오는 재·보선과 총선, 대선에 이르기까지 언제든 엄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하여 민심은 천심이다.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민심읽기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